

기혼여성의 성격특성과 자아편향 및 비현실적 지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홍미라(충북대 박사과정) · 김영희(충북대 교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성격특성이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지각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기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문제는 첫째, 기혼여성의 성격특성, 긍정적 자아편향,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둘째, 기혼여성의 성격특성, 부정적 자아편향, 비현실적 비관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대상은 기혼여성으로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의 유아교육기관과 관공서, 학교, 교회등을 선정하여 질문지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분석 자료는 총 648부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과 AMOS 7.0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도, 백분율, 타당도, 신뢰도, 왜도, 첨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직.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경로에서 모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격특성과 자아편향, 비현실적 지각이 삶의 만족도와 중요한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주었다.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이 긍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높게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친화성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은 긍정적 자아편향을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신경증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낮게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실성과 외향성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은 부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비관주의를 낮게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경증이 높은 기혼여성인 경우 부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비관주의를 높게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긍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기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하위변수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특히 신경증이 높은 기혼여성은 부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비관주의를 높게 하고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덜 함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편향과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